

프랑스 공연예술 탐색 강의

<노트르담 드 파리>의 이해



소설 도입부

첫 장은 1482년의 '광인절' 묘사에 할애된다. 그레브 광장에서는 광인들의 교황을 선출하는 일이 한창이고, 파리 재판소에서는 한 판 풍자극이 벌어진다. 이런 날이면 학생들과 장사꾼, 거지들이 한마음이 되어 귀족과 성직자들을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다. “**타도하라, 앙드리 나리를, 교회지기들과 서기들을, 신학자들을, 의사와 교회법 박사들을, 소송대리인들을, 선거인들과 총장을!**”

이 소리에 불쾌해진 대학 서적상이 말한다.

“이 시대의 빌어먹을 발명품들이 모든 걸 망쳐 놓고 있다 이겁니다. 대포며 세르팡틴 포며, 구포, 그리고 특히 저 독일에서 온 또 하나의 가증스러운 발명품인 인쇄술 같은 것 말이지요. 이젠 수사본도 없어지고 서적도 없어졌소! **인쇄술이 서점을 죽이고 있어요. 말세가 왔어요, 말세가.**”

뮤지컬 스펙터클의 서곡

대성당의 시대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 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
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 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저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이천
년이라고

피렌체 Florence

프로로와 그렝구아르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 뮤지컬 제2막 첫 넘버 피렌체는 원작 소설의 5부와 연계 되어 있다. 르네상스 발생지 피렌체에서의 예술이 변화하는 상황,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기**에 의한 인쇄물의 급속한 전파 등에 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인과 사제가 중세 문화의 종말을 예감하며 슬픈 목소리로 노래한다.

피렌체 Florence

내게 이야기해보라 피렌체와 르네상스 브라만트와 단테의 지옥을
그 곳에선 말하지 지구는 둥글다고 세상엔 또 다른 대륙이 있다고
대서양을 향해 배는 떠났네 인도에 닿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루터는 곧 성경을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 있지 불화의 시대 앞에
개혁자 구텐베르그 세상을 변화시켰고
술 새 없이 새 글이 인쇄되는 뉘렌베르크
수 많은 시와 노래 논문들과 팜플렛
새로운 사상들 모든 걸 바꿔놓을
언제나 작은 것이 큰 것을 허물고, 문학은 건축을 무너뜨리는 것
학교, 책들이 대성당을 허물고 성경은 교회를 인간들은 신을 무너뜨리리
대서양을 향해 배는 떠났네 인도에 닿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루터는 곧 성경을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 있지 불화의 시대 앞에
그렇게 되리라 무너뜨리리라 02 서두

고딕 성당의 유래

사카이 다케시,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BCE 900년: 프랑스에 켈트인 거주

BCE 500년: 케사르 점령 Civitas(중심도시) 통치 제도

CE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리스도교 인정

CE 392년: 테우도시우스 기독교 국교화,
대성당을 키비타스에 건설

CE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주교 관할 키비타스만 존속)
교회는 ecclesia라고 불림

CE 8세기: 다른 예배소와 구별 위해
ecclesia cathedralis라고 명명

CE 12-13세기: 고딕 양식의 대성당 (북예배당, 서예배당 등 세례당의 집합체) 건설.
12세기 고딕 양식 정식 명칭: opus modernum, opus francigenum

CE 15-16세기: 이탈리아인들이 알프스 이북에 전파된 건축양식을 고딕이라 부름

고트인: 서로마 제국 습격, 서고트는 스페인, 동고트는 이탈리아 점령, 이탈리아인들의 고딕 혐오증의 산물이 고딕이라는 용어 탄생 시킴. 고딕의 의미는 프랑스와 무관. 고딕 대성당은 각 도시에 하나밖에 없었고, 성당은 도시 전 인구의 수용할 만큼 웅장한 크기로 건설되고 각 계층들과 이민족, 이방인, 부랑자들 공동의 공간. 함께함의 공간으로서의 성소 기능을 수행함.

고딕 성당의 자연 공간



개간 사업 수사들
14세기 삽화



노트르담 기둥머리



노트르담 내부는 숲을 재현

도시민의 자연 숭배 종교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숭배했던 숲과 대지에 대한 종교적 향수로 인해 숲의 느낌을 주는 **고딕 대성당** 탄생. 내부는 자연 **숲**, **그 어두운 원시림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빛(스테인드글라스)**, **비가시적인 것을 비추는 근원적 분위기가 성스러운 생명감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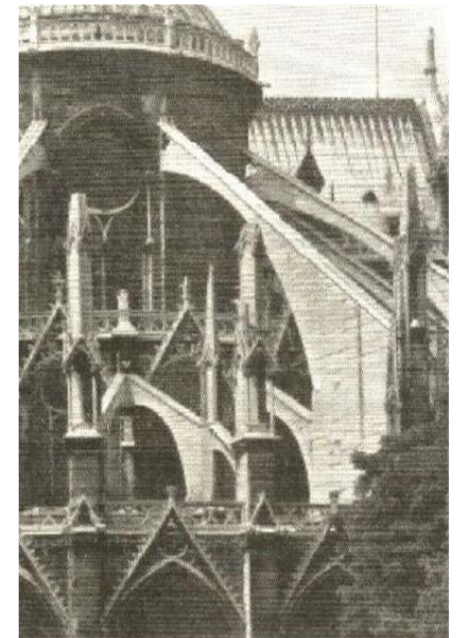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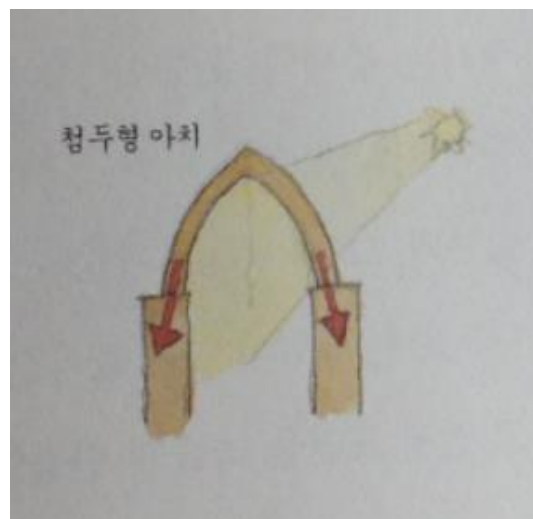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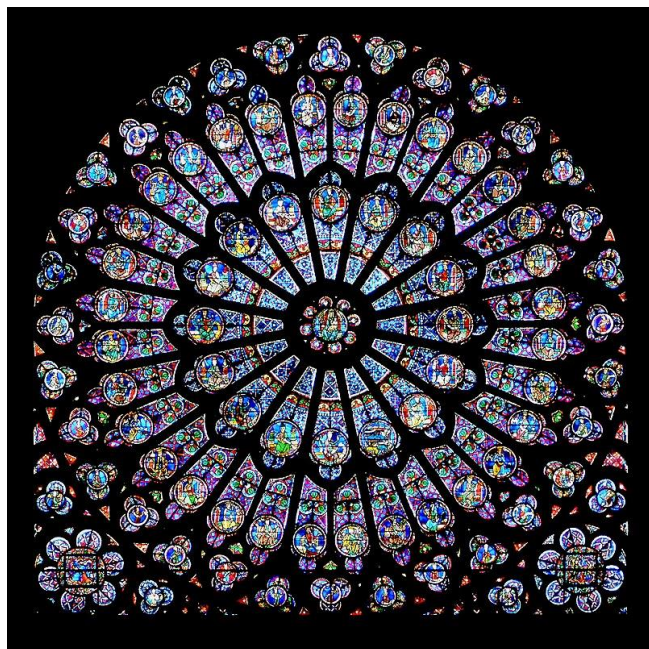
고딕 건축의 특징

천정: **포인티드 아치**(첨두형 아치),

옆 벽면: **스테인드글라스의 신비로움**

외부: **플라잉 버트레스**(고층 건축을 위한 부벽)

생드니 수도원 개축하면서 등장, 처음으로 적용한 대성당은 상스(Sens)의 생테티엔느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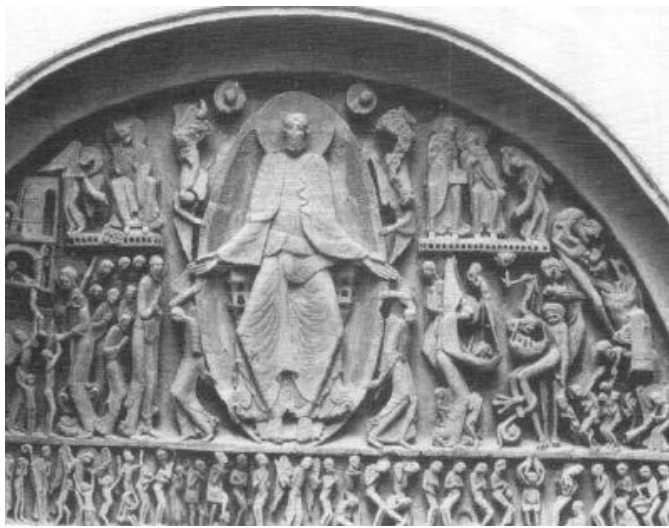
노트르담의 플라잉버트레스

대성당, 이방인 집합소

- 서구 그리스도교화 시기 : 90% 정도가 비기독교인
- 민간 신앙 대상: 울창한 숲, 거대한 나무, 샘, 바위 동굴, 바람
- 농업혁명으로 숲의 소멸 이후 도시로 이주, 이방인 집합소 도시 원주민의 불안 초래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모친 **성 안나** 신앙 유행, 마리아가 키스만으로 잉태되었다는 신앙(노트르담 장미창은 마리아를 상징)
- 공현 대축일인 1월 6일(예수 탄생일)의 전날 밤부터 이틀 동안의 계속되는 축제 ***미트라신** 탄생일 12월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지정(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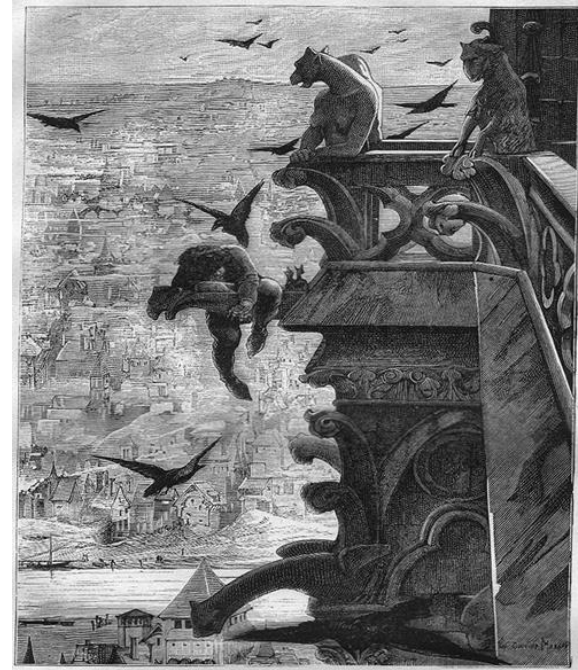
고딕 성당, 선과 악 공동의 공간



노트르담 서쪽 파사드



성당 옥상 가고일



원작 소설 삽화

선과 악의 공존: 최후의 심판, 죽음의 자각으로 전율과 불안 야기, 신앙심 유발. 그로테스크한 괴물 이미지들 탄생. 선인들의 성당을 지키는 괴물 키메라. 가고일, 광대의 축제, 흥측한 카지모도, 아름다운 여인 카지모도 공동의 공간.

고딕 상승 지향의 의미, 권위의 상징이자 유한성 자각

- 국왕의 권위 회복 의지, 고위 성직자들의 이해 관계 갈등, 일반 시민들의 경쟁심이 어우러진 도시 공간의 고층 빌딩
- 상승 지향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비소함·왜소함·유한성에 대한 자각, 인간을 초월한 카리스마적인 힘에 대한 동경, 초인간적인 힘에 의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
- 당시 사람들은 문자를 몰랐다. 라틴어 기도문 역시 못 알아 들음 성당은 교리 전도의 의미를 넘어섬. 즉 기호를 넘어선 이미지의 보고 현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눈으로 저 성당 높은 곳의 조각(20m~51m)창으로 들어오는 빛(신의 말씀: 요한복음 1장1절)
- 스테인드글라스의 그림 (IMAGE)이 전하는 말을 알아 봄, 기호 (CODE, SIGN)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실체를 지시.
- 교통 표지판 같은 코드와 달리, 성스러움의 이미지는 지시 관계가 아니라 성스러움의 이미지

고딕 부활을 염원하는 빅토르 위고 숙명의 로망 <노트르담 드 파리>

이미지의 보고, 진정한 신앙의 성지, 축제의 공간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의 복원 결심, 소설 발표하여 기금 마련하고자 집필, 숙명 3부
작의 한 편, 저주받은 인간의 숙명과 에로티즘을 성당의 공간과 인물
이야기를 통해 풍자와 성적 담론으로 표현.

주제: 숙명 **ANÁΓKH**

<노트르담 드 파리>: 교리의 Anank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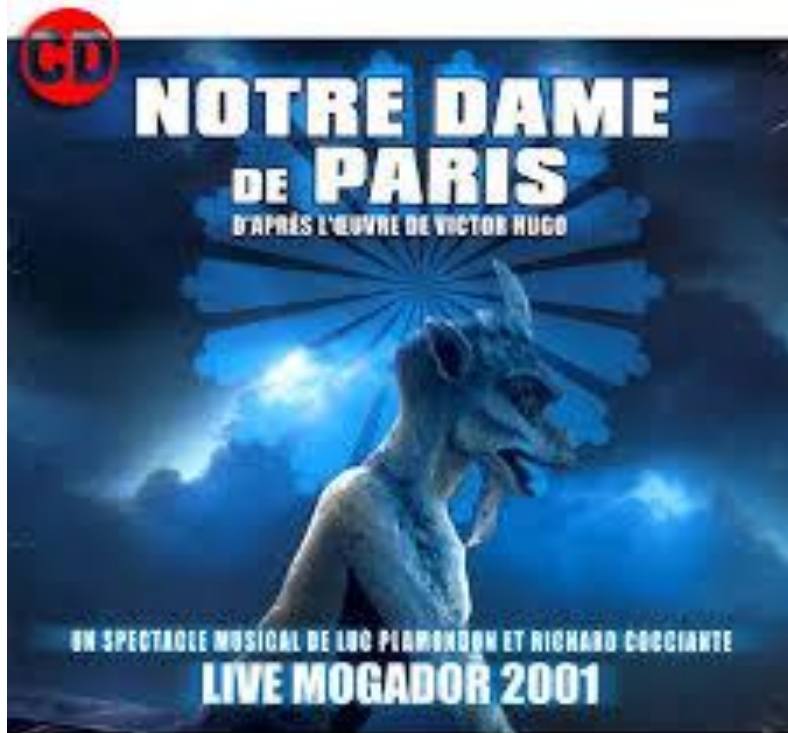
<레 미제라블>: 법률의 Anankè

<바다의 노동자들>: 사물의 Anankè

노트르담 성당 벽에 새겨진 그리스어 Anankè를 발견한 위고는 그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15세기에 19세기 프랑스 현실을 입힌다. 35년
후 1866년 위고는 <바다의 노동자들 Les Travailleurs de la mer>
서문에서 <노트르담 드 파리>은 '교리의 숙명 anankè des dogmes'
이며, '교리'는 중세 기독교 신앙이 마녀, 악마, 마술, 신비라 부른 초
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과 그것들과의 교류를 포함한다.

음악으로 재탄생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빅토르 위고 원작에 담긴 역사성과 예술성 즉 인간과 야만, 신앙과 위선, 사랑과 배반, 진실과 허영의 대립적 주제들을 대중적으로 완화시킨 서정적 가사로 표현하는 데 성공.
- 시인, 사제, 거리의 여인, 꿈추, 이방인의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을 사랑과 죽음의 에로티즘으로 표현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 원작은 11부로 구성, 뮤지컬은 이 가운데 1부, 3부, 5부의 장황한 시대적 배경 1막과 2막의 첫 번째에 축약, 이외의 부분은 사랑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전개.
- 가사에 어울리는 음악과 안무 무엇보다 이를 위한 심플한 무대 미술 연출로 원작의 분위기를 전달.
- 대중 공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전성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연출로 국경을 초월한 월드 투어 대작으로 성장



LIVRET ET PAROLES

Lue Plamondon

-대본-
"뤽 플라몽동"

MUSIQUE

Richard Cocciante

-음악-
"리샤르 코시앙뜨"

MISE EN SCENE

Gilles Maheu

-연출-
"질 마으"

Charles Talar
&
Loulling Système

présentent
-제작-

"찰스 타라 & Loulling Systeme"

CHOREGRAPHIES

Martino Müller

-안무-
"마르티노 뮐러"

LUMIERES

Alain Lortie

-조명-
"알랭 로르띠"

DECORS

Christian Rätz

-무대디자인-
"크리스티앙 라츠"

COSTUMES

Fred Sathal

-의상-
"프레드 사달"

quasimodo

Garou

-콰지모도-
"가루"

eslopin

Luck Mervil

-클로팽-
"뤽 메르빌"

esmeralda

Hélène Ségara

-에스메랄다-
"엘렌 세가라"

gringoire

Bruno Pelletier

-그랭그와르-
"브루노 펠띠에"

frollo

Daniel Lavoie

-프롤로-
"다니엘 라부아"

fleur-de-lys

Julie Zenatti

-플뢰 드 리스-
"쥘리 제나띠"

phoebus

Patrick Fiori

-페뵈스-
"파트릭 피오리"

거리의 방랑자들 LES SANS-PAPIERS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수천의 발길이 성 앞을 떠도네 이제 곧 우리는 수만 명이 되고
수십, 수백만의 쉴 곳은 어딘가, 어디, 어디,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우리의 발길이 떠도는 이 곳은 섬 위에 세워진 도시의 성문 앞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그 날에 이곳은 우리의 세상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어디
우리들 이방인 부랑자들 갈 곳이 없는 떠돌이들
오, 노트르담 우리가 쉴 곳은 어디, 은신처는 어디 1.00:04:03

*이하 출처: <노트르담 드 파리> OST 가사(한국판)



오! 노트르담! 우리에게



은신처! 은신처! 은신처! 은신처를!

미치광이들의 축제 LA FETE DES FOUS

자 축제의 시작이다

자 축제다 미치광이

내게 맡겨주오 이 기쁜 축제를 신나고 즐겁게 이끌어가도록

자 축제의 시작이다

추한 자들 중에 가장 추한 자들 괴물들의 대행진을 열어보자

또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추한지 가장 추한 한 사람을 뽑아보자

미치광이 교황님을 가장 추한 자를 미치광이들의 교황님을

미치광이 교황님을 미치광이 교황님을 미치광이 교황님을

저기 숨어있는 저 자는 누군가 저 괴물 저 못난이를 끌어내라

미치광이 교황님을 가장 추한 자를 미치광이들의 교황님을

성당의 종지기 꼴사나운 곱추 가장 추한 이름 그는 카지모도

주제도 모르고 아아 에스메랄다 그녀를 꿈꾸네 그 천한 꿈속에

미치광이 교황님을 미치광이들의 교황의 이름은 카지모도

가장 추한 자를 미치광이들의 교황님을 미치광이들의 교황의 이

름은 카지모도 교황이여 1.00:19:40

태양처럼 눈부신

BEAU COMME LE SOLEIL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왕자님일까 가슴 깊은 그 곳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왕자님일까 내겐 왕자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악당 그는 군인 그의 품에 안기면 난 달아날 수가 없네

태양처럼 눈부신 그는 악당 그는 군인 왕의 군인

태양처럼 눈부신 나의 기적, 나의 남자 우리의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

태양처럼 눈부신 나의 기적 나의 남자 태양처럼 눈부신 아, 태양처럼

1.00:37:32

아나키아 ANARKIA

누구나? 성당 앞에서 불경스런 춤을 추는 저 여자는

그녀는 나의 아내, 짚시의 왕이 나에게 주었죠

그녀를 만졌나? 사탄의 종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선 안돼

내게 말해줘요 저 글의 의미를 회랑의 돌 위에 새겨져 있는 말. 저건 무슨 뜻이죠?

아나키아.

정신차려라. 그리스어로 그 뜻은 **숙명**이다.

저건 카지모도, 무슨 일일까요

저 녀석 또 무슨 짓을. 알아보라. 왜 인지.

1.00:42:41

아름다워 BELLE

벨 눈부신 그녀를 위해 있는 말 새처럼 날개짓 하는 그녀를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난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
그 치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길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오 루시퍼, 오 단 한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벨, 너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가 신을 향한 내 눈을 가리는가
너로 인해 눈을 뜬 욕망에 갇혀 저 하늘을 더 바라 볼 수 없도록
원죄의 숙명을 안고 사는 그녀, 그녀를 향한 욕망은 최악인가
그 천하고 더러운 한 여자의 등에 인류의 십자가가 놓여있는 듯
오 노트르담 오 단 한번만 그녀를 나의 것이 되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벨, 검은 너의 두 눈 유혹의 눈길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지
무지개처럼 치마를 휘날리며 춤추는 넌 내게 마법을 걸지
사랑이여 제발 날 용서해주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저버린
그 누가 네게서 눈을 땔 수 있을까 이대로 굳어서 돌이 된다 해도
오 플뢰르 드 리스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랑은 에스메랄다
그 치맛자락에 붙들린 내 눈길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오 루시퍼, 오 단 한번만이라도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내 집은 그대의 집

MA MAISON C'EST TA MAISON

내 친구 석상들이 돌봐줄 꺼예요 걱정 말아요 그댈 지켜주죠
피할 곳이 필요할 땐 언제든 이곳을 찾아오세요

노트르담 성당은 내 집, 내 둥지, 내 거리, 내 인생, 하늘, 지붕, 침대
내 노래, 내 자유, 내 이성, 내 광기, 내 정열, 내 고향, 내 바다

당신의 친구들은 내게도 친구죠 슬프고 우울할 땐 나를 웃게 해요
아직 무섭지만 당신이 좋아요 당신 모습 그들과 닮았으니까
내 집엔 언제나 맑은 날 뿐이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언제든 오세요 무슨 계절이든 그대가 원할 땐, 내 집은 그대의 집
피할 곳이 필요할 땐 언제든 이곳을 찾아오세요

내 집엔 언제나 맑은 날 뿐이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언제든 오세요 무슨 계절이든 그대가 원할 땐, 내 집은 그대의 집
우~ 이곳은 나의 집. 1.00:50:30

이방인의 아베마리아

AVE MARIA PAIEN

아베마리아 용서하소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저를
아베마리아 그 앞에 무릎 꿇어본 적도 없는
아베마리아 저를 지켜주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불행들로부터
아베마리아 비록 서로 고향은 달라도
아베마리아 모두 형제듯 우리 가로막는 이 장벽을 허물어주소서
아베마리아 저의 낮과 밤을 지켜 주소서
아베마리아 지켜주소서 이 보잘 것 없는 사람 이 사람 아베마리아

1.00:53:32

발다무르 카바레 LE VAL D'AMOUR

생드니 거리 저 높이 축복 받은 곳이 있지
하루가 저물어가면 촛불들이 켜지는 곳
넓은 벌판 한 가운데 사랑을 찾는 발길이
오늘도 끊이지 않는 카바레 발 다무르
오 발 다무르 그 곳에선 몇 푼에 사랑 팔지
황금도 달콤한 말도 거기선 다 필요 없어
그 곳에선 사랑 따윈 몇 푼이면 살 수 있지
세상 모든 항구에서 이 곳에 모인 사람들
여행자와 장사치들 머물렀다 떠나고
부자나라 양반들은 물 뿌리듯 돈을 쓰지
눈물 흘리며 부르는 내 슬픈 사랑 노래에
귀 기울이는 여인들 카바레 발 다무르
북소리 높이 울려라 이 곳으로 달려오라

사랑에 빠진다 해도 이 곳에서는 괜찮아
사랑의 모든 기쁨을 여기서 맛 볼 수 있지
사랑에 굶주릴 때면 난 이 곳을 찾아오지
어느 새 아침이 오면 떠나가야만 할 시간
미안해요 아가씨들 아름다운 에스메랄다
나를 운명이라 믿는 그 널 기다려야 해
사기꾼과 건달들이 북문 근처에 모이네
그들의 바쁜 걸음이 찾아가는 곳 발 다무르
여기선 체면을 벗고 마음껏 취할 수 있지
오 발 다무르 그 곳에선 몇 푼에 사랑을 팔지
황금도 달콤한 말도 여기선 다 필요 없어
이 곳에선 사랑 따윈 몇 푼이면 살 수 있지
이 곳 카바레 발 다무르 카바레 발 다무르
1.01:01:59

사랑의 기쁨 LA VOLUPTÉ

내게 주오 사랑의 기쁨을
누구의 손길도 아직 닿지 않은 그대를
오로지 나만이 그댈 알게 해주오
오, 나의 검은 천사 사랑하리 우리 둘 만의 밤
첫 눈길로 미친 사랑에 빠졌지
같은 불꽃이 되어 우린 타오를 거예요
이 사랑에 내 전부를 걸고 싶어
운명 그 뜻을 따르겠어요
함께 운명이 이끄는 길로

1.01:05:30

숙명이여 **FATALITE**

숙명이여 그 누구의 인생도

숙명이여 벗어날 수 없는 힘

숙명이여 왕자건 거지건

숙명이여 여왕이건 창녀건

숙명이여 **운명의 지배자여**

숙명이여, 숙명이여, 숙명이여

01:07:15

성당의 종들 LES CLOCHES

종소리 그치고 침묵하는 성당 카지모도는 불행하고 사랑에 빠져 버렸네

종들이 멈춘 지 사흘이 되었지 카지모도는 슬프고 미쳐버렸지

사랑으로 죽어가네

대성당의 종들은 나의 사랑 내 연인들 그 노래 먼 곳까지 울리기를 난 원하지

천둥, 번개와 비바람 몰아쳐도 노랴 불러다오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탄생과 죽음을 환호와 좌절을 그 모든 시간들을 알리는 종소리

기도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눈 뜨는 이를 위해서 울리는 소리

종교주일을 위해 부활주일을 위해 성탄절 만성절을 위해 울리는

수태고지일을 주님의 부활을 그 모든 축일을 알리는 그 종소리

미사와 행렬을 위한 그 종소리 신의 축제를 위한 아름다운 소리

새로운 노래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날들을

세례와 성찬식 기도의 시간을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리

성모와 주님이 승천하신 그 날 호산나 찬양하는 그 소리를 위해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셋 있지 나의 마리아

작은 종 마리아는 죽어간 어린 목숨을 위해

커다란 마리아는 뱃사람의 앞 길을 위해

결혼하는 어린 연인을 위한 제일 큰 마리아의 노래

나는 건딜 수가 없어 죽고만 싶어 차라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들 하지만 누구보다 나는 불행해

결혼의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그 모습

나의 종소리는 거룩한 미사곡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는 노래

불행의 종소리 행복의 종소리 한번도 결코 날 위해 울리지 않니

대성당의 종들은 나의 친구 내 연인들 이 마음 전해다오 큰 소리로 울려다오

그녀가 살아있다면 오 나의 에스메랄다

2.00:05:06

죄인들 CONDAMNES

죄인들 피고인 붙잡힌 사람들 유배자 망명자 쫓겨 난 사람들
너와 내 피부는 서로가 다른 색 내 춤과 노래도 너와는 다르지
이 거리, 이 땅에 쫓겨 난 이 고통

그런 세상을 만들 순 없는 걸까

배척도 없고, 가난도 없고 국경도 없는

고문을, 처형을, 학살을, 당하고, 굴욕을, 억압을, 배척을 받는 자

내 몸에 가슴에 묻어 둔 내 나라 불행과 죽음을 내게 준 이 나라 회색빛
이 하늘 배척도 없고 가난도 국경도 없는

새로운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

죄인들 피고인 붙잡힌 사람들 유배자 망명자 쫓겨난 사람들

죄인들 죄인들

2.00:15:45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랄다 DANSE

MON ESMERALDA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찾겠지
끌어안은 채 썩어간 두 사람의 뼈를
슬픈 과지모도 그가 에스메랄다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했는지
저주 받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피와 살을 뜯거라 어둠의 독수리여
시간과 죽음을 너머 하나가 되도록
고집스런 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간절한 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조금만 더 날 위해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함께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내 품에서 잘자요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저 세상 그 끝까지 죽음도 두렵지 않아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함께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2.00:56:37

단순하지만 중후한 무대 공간



A dramatic stage performance featuring several dancers in dark, form-fitting costumes. Three large, dark bells are suspended from the ceiling, each with a person hanging from its clapper. The background is a large, textured wall with a grid pattern. The lighting is dim, with spotlights highlighting the dancers and the bells. The overall mood is somber and intense.

삼종 기도와 진노의 날, 슬픔의 날

노트르담 드 파리가 이끄는 이상

빅토르 위고의 인간적 낭만주의
기독교적 신앙과 예술적 혼으로
죽은 시인(그렝구아르)의 사회에서
시인을 살리는 사회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낯선 세계로

친밀한 낭만주의 뮤지컬 스펙터클의 의의